

KOSDAQ
 운송

기업분석 2022.10.26

현대무비스 (319400)

물류 자동화 수혜 및 PSD 해외시장 진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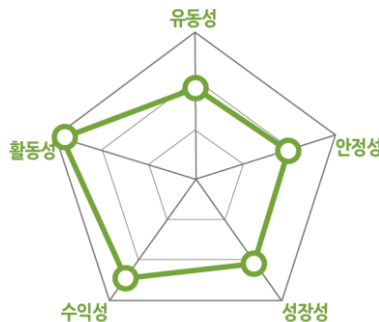
체크 포인트

- 당사는 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의 물류사업부와 PSD(송강장안전문) 사업부가 분사하여 2017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현대그룹 S업체인 현대유엔아이와 합병으로 사명을 현대무비스로 변경하였고, 2021년 3월 NH SPAC 14호와 합병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 사업별 매출비중은 물류자동화 65.4%, PSD 12.1%, IT서비스 22.5%로 구분. 최대주주는 현대엘리베이터로 지분율 33.2% 보유
- 당사는 냉동/냉장, 유통/택배, 타이어/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분야 물류자동화에 강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2차전지 부문으로 사업 확대. PSD 부문 국내 수요성장이 제한적인 가운데 당사는 호주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외 진출 모색 중
- 투자포인트: 1)신규사업으로 2차전지 물류솔루션 시장 진출, 2)Sydney Metro, PSD 공급업체 발표 임박
- 2023년 매출액증가율 +15.0%, 영업이익증가율 +21.1% 전망. 물류자동화 부문 성장세 지속, PSD 부문 시드니 메트로 PSD 수주 및 2차전지공장 자동화 부문 추가 수주 기대

주가 및 주요 이벤트



재무 지표



주: 2021년 기준, Fnguide WCS 분류 상 산업개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1년 기준, PBR은 2022 기준, Trailing, Fnguide WCS 분류 상 산업개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현대무비스 (319400)

Analyst 이원재 wonleewj@kirs.or.kr
RA 이나연 lny1008@kirs.or.kr

KOSDAQ
운송

현대그룹계열 물류자동화 Total Solution Provider

동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물류사업부와 PSD(승강장안전문) 사업부 분사로 2017년 설립, 2018년 현대그룹 SI업체인 현대유엔아이와 합병으로 현대무비스로 사명변경. 2021년 3월 NH SPAC 14호와 합병으로 코스닥에 상장. 매출비중은 물류자동화 65.4%, PSD 12.1%, IT서비스 22.5%이며, 최대주주는 현대엘리베이터로 지분율 33.2% 보유

물류자동화 부문 성장세 지속 & PSD 해외 진출 모멘텀 부각 예상

주요 투자포인트로는 1)신규사업으로 2차전지 물류솔루션 시장 진출, 2)Sydney Metro, PSD 공급업체 발표가 임박해 수주 성공時 PSD 부문의 해외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

2023년 외형 및 이익 동반성장 전망

2023년 매출증가율 +15.0%, OP증가율 +21.1% 전망. 물류자동화 부문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PSD 부문 시드니 메트로 PSD 및 2차전지공장 자동화 추가 수주 기대

상반기 CB 전환으로 오버행 이슈는 해소

상반기 CB 전환(780만주)으로 주가의 오버행 이슈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대주주지분율이 61%로 많고, 우호지분인 HMM도 12.8%를 보유해 주식유동성 부족문제는 주가에는 리스크 요인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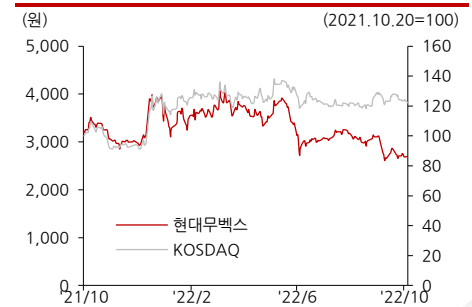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억원)	1,720	1,975	2,401	2,439	2,805
YoY(%)	-2.5	14.8	21.6	1.6	15.0
영업이익(억원)	102	166	154	193	234
OP 마진(%)	6.0	8.4	6.4	7.9	8.3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2	113	81	130	163
EPS(원)	73	115	79	117	142
YoY(%)	-14.6	57.5	-31.2	47.3	21.9
PER(배)	27.5	51.2	39.7	23.1	19.0
PSR(배)	1.0	2.9	1.3	1.2	1.1
EV/EBIDA(배)	1.8	1.2	15.0	10.9	9.0
PBR(배)	2.7	6.3	2.6	2.3	2.1
ROE(%)	10.4	14.1	7.3	9.9	11.4
배당수익률(%)	0.0	0.0	1.0	1.1	1.1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0/24)	2,695원
52주 최고가	4,060원
52주 최저가	2,610원
KOSDAQ (10/24)	688.50p
자본금	105억원
시가총액	3,093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115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5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6억원
외국인지분율	0.12%
주요주주	현대엘리베이터 외 6인 60.01%
	에이치엠엠 12.6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9.9	-27.9	-17.2
상대주가	-4.5	-3.4	19.7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IC',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물류자동화 토탈 솔루션업체로
사업부문은 물류자동화(65.4%),
PSD(승강장 안전문, 12.1%),
IT서비스(22.5%) 등 3개 부문**

‘Move the World, Hyundai Movex’, 동사의 홍보영상에 나오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짐작할 수 있듯 동사는 국내 시장에서 물류자동화 전문 Total Solution업체이다. 동사는 2017년 현대엘리베이터의 물류사업부와 PSD(Platform Screen Door, 승강장 안전문)사업부가 분사하여 2017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현대그룹의 SI업체인 현대U&I와 합병하면서 사명을 현대무브스(Hyundai Movex)로 변경하였다. 이후 동사는 2021년 3월 NH SPAC 14호와의 합병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2021년 부문별 매출비중은 물류 자동화 65.4%, PSD 12.1%, IT서비스 22.5%로 3개 사업부문으로 나뉜다. 2022년 상반기말 주주현황은 현대엘리베이터가 33.2%로 최대주주이며, 현정은회장外 특수관계인 27.8%, HMM(舊 현대해상) 12.8%, 기타 개인/기관 26.2%이다.

**물류자동화 사업에 1989년 진출,
33년간 1,000여건 실적 보유,
냉장/냉동창고, 자동차/타이어 등
공정에 업계 최우수 역량 보유**

동사의 주력인 물류자동화 사업부문은 현대엘리베이터 시절 1989년 사업에 진출한 이래 33년간 1,000여건의 풍부한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프로세스를 분석(시스템 엔지니어링)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스템 레이아웃과 제품 설계도를 제작(디자인)하고, 모든 기계장비를 직접 설계/제작(Installation)하며, 토목/건축 공사를 포함하여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동사는 기술 신뢰도가 높은 직영인력을 통한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물류자동화 전반의 Total Solution업체이다. 경쟁사들은 산업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반면 동사는 제조, 화학, 공항물류, 식품, 의류 등 전 산업군에 적용가능한 기술력으로 시장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며, 특히 냉장/냉동창고 및 자동차/타이어 공정에 업계 최우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통상 사업 수주부터 납기까지 리드타임은 1.5년이 소요된다.

최근 글로벌 E-commerce 시장 수요 증가로 쿠팡, 네이버 등 스마트 물류시장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사는 22년 4월 LG화학 구미공장의 2차전지 양극재공장 자동창고 공사를 수주하며 2차전지 부문에도 진출하였다. 이에 동사는 2차전지시장 수주 확대를 목표로 상반기 중 2차전지 전담 신사업팀을 설립하였으며, 2차전지 물류자동화 컨설팅 유경험자 위주 인력확충으로 시장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가 수주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사는 2019년 인천 청라에 국내 최대규모의 물류자동화 R&D센터를 설립하고, 석·박사 포함 90여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R&D센터에서는 서비스로봇반송장치, Auto Unloader 등 로봇기반 장비 및 기타 통합 물류 솔루션, AI기반 물류 최적화 등에 대해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동사는 2022년 6월 글로벌 IT기업인 PTC와 AI솔루션 고도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8월에는 AI/로봇 분야 스타트업인 씨메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로봇 고도화 및 미래기술 협력을 통해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999년 국내 최초로 PSD 도입,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 역사에
PSD를 공급, M/S 50%의
국내 1위업체**

동사는 1999년 일본 PSD(Platform Screen Door)시장 최대업체인 Nabtesco와의 기술제휴로 국내시장에 최초로 PSD를 도입한 이래 서울, 수도권에 300개 이상,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 역사에 PSD를 공급해 국내 시장점유율은 50% 이상으로 업계 1위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대부분 지하철과 전철에 PSD 보급률이 거의 100% 포화 수준인 가운데 신규 수요로는 수도권 기존 노선 연장 수요 및 서해선, 동해남부선 등 지방노선의 신규 역사, GTX 등 광역철도 등으로 국내 수요 성장세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동사는 판로를 확대를 위해 해외 입찰에 참여해 수주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동사는 호주 최대 도시철도사업인 Sydney Metro 프로젝트(4개노선 中 City & Southwest Line)의 PSD 입찰에 참여해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 Shortlist 3社(일본 Kyosan Electric, 스위스 Gilgen Door Systems 포함)에 선정되었으며, 해당 노선이 2024년에 운행에 착수하는 만큼 연내에는 Sydney Metro로부터 최종 결과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 Sydney Metro 수주에 성공한다면 PSD 부문 해외 첫 진출사례로 동사의 기술력이 입증됨과 동시에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합병 이전 동사의 IT서비스 부문은 현대유엔아이로 현대그룹에 SI 서비스 제공, 매출비중은 현대계열 Captive시장 70%, 외부매출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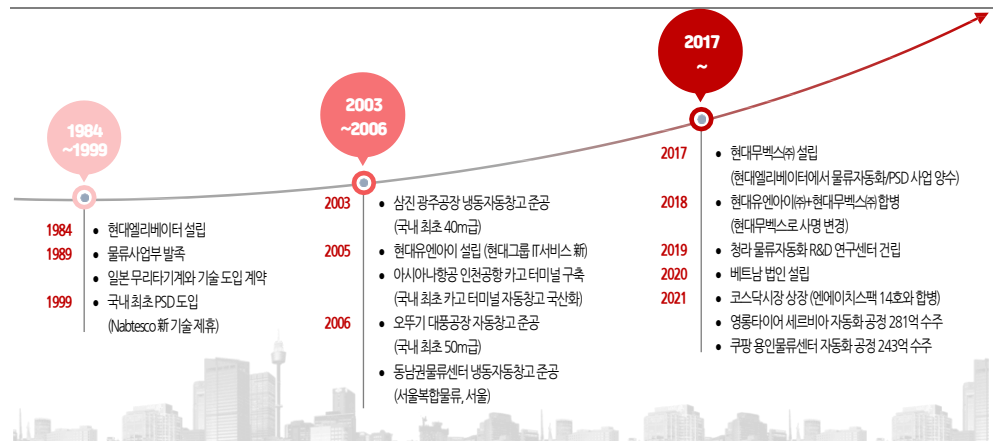
동사의 IT서비스 사업부 전신은 기존 합병 이전 현대U&I로 해운, 건설, 유통 등 현대그룹사에 IT서비스를 제공하던 SI업체이며, 2005년 사업에 진출했다. 2000년 초반 현대그룹의 계열 분리로 그룹사내 Captive 수요처는 축소되었으며, IT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지난 2017년 779억원에서 2021년 539억원으로 줄었다. 동기간 IT서비스 매출비중은 2017년에는 60.3%로 주력 사업이었으나, 이후 물류자동화 및 PSD 사업부문의 성장으로 2021년에는 22.5%로 줄었다. 대내외 매출비중을 보면 대내(Captive) 비중이 70%이며, 대외 비중은 30%이다. IT서비스 주요 산업 영역은 해운, 항만, 물류, 유통, 호텔, 건설, 관광,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사업군에 걸쳐 있으며, 동사는 기존 사업에 더해 아마존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WS(Amazon Web Service) 기반의 Cloud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및 동남아 해외시장 진출, 타이어 및 냉동창고 부문 자동화 수주 증가세

동사는 국내에서 검증된 물류 자동화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다. 동사는 동남아시아 진출 거점으로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구축(2017)하고, 중국 신동에 물류자동화설비 공급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냉장/냉동창고 및 타이어 공정 자동화 부문 수주에 주력하고 있으며, 베트남에도 현지법인(Hyundai Movex Vina)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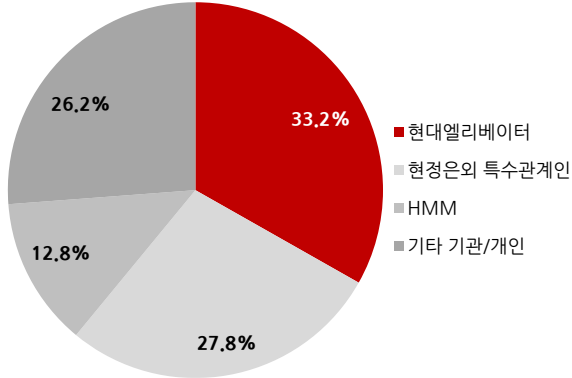
동사의 해외진출 이후 수주실적을 보면 중국 영롱타이어 세르비아공장 자동화 수주 280억원(2021), 중국 영롱타이어 장춘공장 자동화 수주 36억원(2021),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AJ토탈 냉동창고 자동화 수주 170억원(2019~2020), 캄보디아 CART타이어 자동화 수주 92억원(2021) 등 중국 및 동남아 타이어회사에서 자동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도 온라인 유통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냉장/냉동창고 등 유통과 택배부문에서 물류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석유화학시장에서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로 동사에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회사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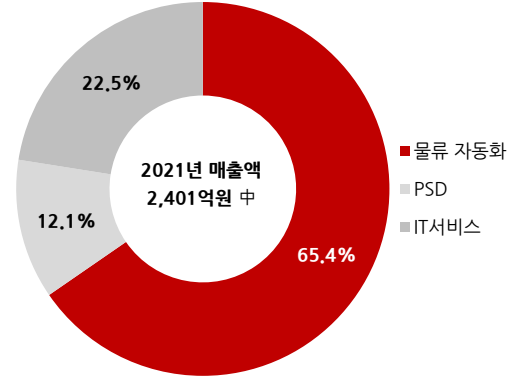
자료: 현대무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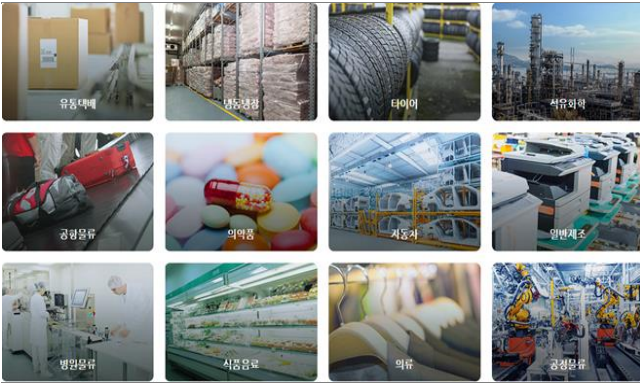
자료: 현대무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별 매출비중



자료: 현대무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물류 자동화 전방 산업



자료: 현대무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SD 시공 사례



자료: 현대무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물류 자동화 부문 주요 고객사

<p>식품음료 / 유통택배</p> <p>coupang, NAVER, CJ 제일제당, abc 애경</p>	<p>자동차 / 타이어</p> <p>HYUNDAI, KIA KIA MOTORS, HANKOOK, DOUBLESTAR</p>
<p>일반제조 / 의류</p> <p>NIKE, HYUNDAI, YOUNGONE, 유한킴벌리</p>	<p>냉동냉장 / 석유화학</p> <p>롯데케미칼, LG화학, 하림, Dongwon 동원산업</p>
<p>병원물류 / 의약품</p> <p>GC 녹십자, 종근당, JW 중외제약, 기동대학교 성모병원</p>	<p>공장물류 / 공항물류</p> <p>SAMSUNG 삼성물산, KOREAN AIR, FedEx, 현대중공업</p>

자료: 현대무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IT서비스 부문 주요 고객사

<p>클라우드 / IA, Big Data</p> <p>Hanwha, TOTAL, Halla 한라홀딩스, 현대경제연구원, 현대엘리베이터, 태전그룹, 인천스마트시티</p>
<p>시스템 통합 / 시스템 운영</p> <p>서울교통공사, HMM, 현대엘리베이터, 해양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p>
<p>항만 솔루션 / 선사솔루션 / 선박솔루션</p> <p>PSA PNIT, SNCT, HMM OCEAN SERVICE, UNCT 유엔시티, HPNT, HYUNDAI GLOVIS</p>

자료: 현대무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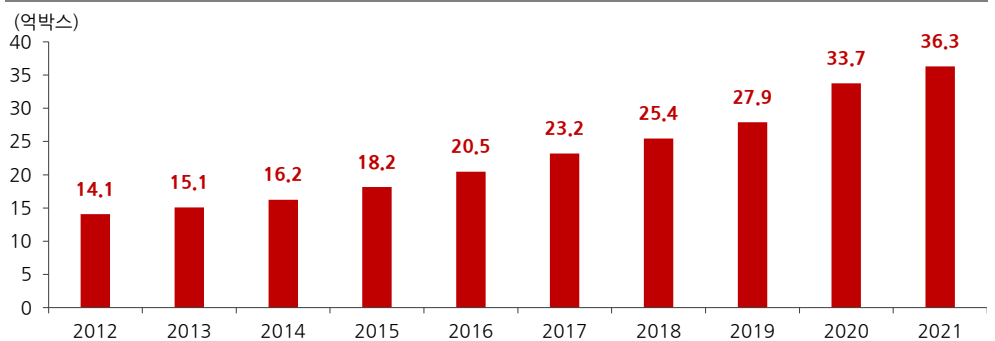
산업 현황

유통/택배 부문 이커머스시장 고성장으로 물류자동화 수요 증가

물류자동화는 냉동/냉장, 유통/택배, 자동차/타이어, 석유화학, 제약/바이오, 공항터미널, 2차전지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기업의 생산공정부터 보관, 운송에 이르는 공급망에 대한 자동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주요 산업 중에서는 유통/택배산업에서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은 2017년 94.2조원에서 2021년 187.1조원으로 두배 성장해 최근 4개년 연평균성장률(CAGR) 18.7%를 기록하였다. 2022년 들어서도 8월 누적 거래액은 134.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성장하였다.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고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유통업체들의 물동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업체간 속도경쟁으로 물류 효율화가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물류자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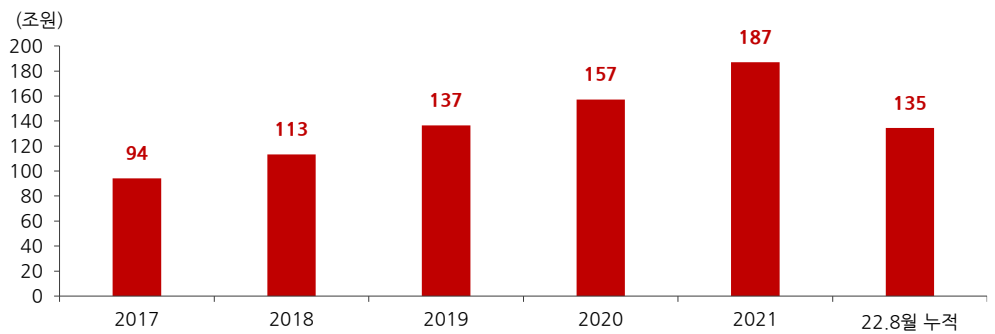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택배물동량은 2012년 14.1억박스에서 9년만에 2021년 36.3억박스로 증가해 9개년 연평균성장률(CAGR) 11.1%를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홈이코노미(재택경제) 영향으로 택배물동량 증가율이 20.8%로 최근 10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 증가율은 전년 급증에 따른 역기저효과 및 코로나19 완화 영향으로 7.6%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물류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Logistics IQ는 최근 보고서(Warehouse Automation Market)를 통해 물류 자동화시장이 2027년 410억달러로 2022년 이후 5개년간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 택배 물동량 추이



자료: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온라인·모바일 거래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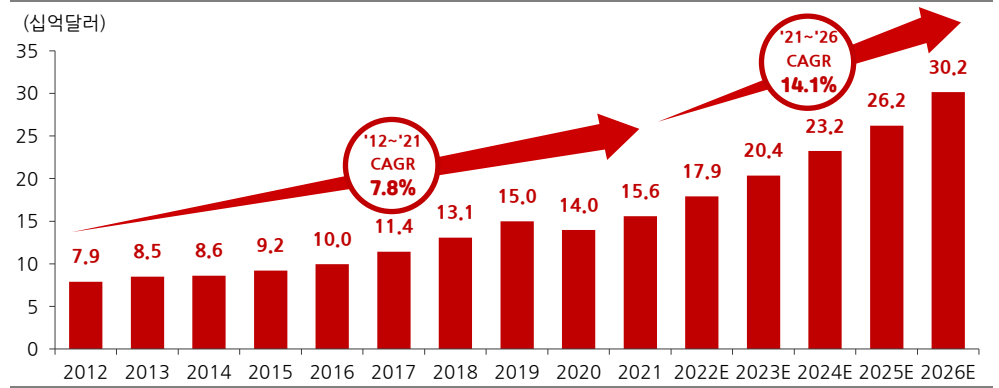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자동화창고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14.1% 성장 전망**

Statista 2022 통계에 의하면 글로벌 자동화창고 시장규모는 2012년 79억달러에서 2021년 156억달러로 연평균 7.8% 성장했으며, 2026년까지는 302억달러로 향후 5년간 CAGR 14.1%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타이어, 석유화학, 제약, 식음료, 자동차, 냉동창고 등의 제조부문 사업영역에서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B2C 전자상거래 산업뿐만 아니라 2차전지, 자율주행, IoT, AI로봇 등 4차산업 부문에 반도체 수요가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자동화 창고 투자 수요가 예전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자동화창고 시장 규모 전망



**국내에서는 쏠역사에 PSD 설치율
100% 도달하며 포화 상태,
기존 노선 연장선, GTX,
일부 신규 노선 및
지방 경전철 수요는 지속,
국내 1위기업인 동사를 포함
7~8개사가 경쟁 구도 형성**

국내 PSD(Platform Screen Door)의 시초는 동사가 2004년 일본 Nabtesco社의 기술제휴로 국내 최초로 시공한 광주 1호선이다. Nabtesco는 1991년 일본 최초로 도쿄 지하철 난보쿠선역에 스크린도어를 최초로 제작 설치한 업체이다. 서울지하철은 2006년 서울시에서 전역사에 PSD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09년까지 전역사에 100% 설치되었다. 이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기존 지하철역사에도 스크린도어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2015년에는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는데, 이로부터 도시철도의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 까지도 도시철도에 2017년까지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다.

국내 시장은 2017년 이후 기존 역사에 PSD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포화된 상태이며, 신규 수요로 GTX 및 기존 전철노선의 연장선(1호선, 4~5호선, 7~8호선, 신분당선 등)과 새로 신설되는 노선(신림선, 진접선, 대곡소사선, 신안산선 등)과 지방에 건설 예정인 경전철 등에서 수요가 발생한다. 또한 PSD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20년 이상 지나면서 노후 역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유지보수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국내 PSD공급업체는 과거에는 실적에 따른 입찰 제한으로 동사를 포함해 GS네오텍, HDC랩스(舊 현대이 이콘트롤스), 현대로템, 삼중테크 등 대기업 계열 5개사 정도가 경쟁하는 시장이었으나,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입찰 참여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동우자동어, 우진산전, 비즈로시스 등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동사를 포함하여 7~8개사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동사는 서울 및 수도권에 300개 이상 및 전국 400개 이상 역사에 PSD를 공급해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국내 1위이다.

국가별 PSD 도입 현황

국가	PSD 도입 여부	설치 현황
한국	YES	2017년 이후 도시철도 PSD 설치율 100% 도달, GTX 및 기존 노선 연장선, 신설 노선으로 제한적 수요
미국	NO	워싱턴메트로 2020년까지 PSD 발주되었으나 설치 지연 중 뉴욕지하철, 역사 노후화로 PSD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시카고전철도 도시 전체 PSD 설치 목표이나 지연 중
일본	YES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당시 모노레일에 최초 PSD 설치 1991년 도쿄 지하철 난부쿠선에 지하철 최초 PSD 설치 PSD 역사에 비해 설치율은 높지 않은 편(비용문제, 지진 시 대피문제 등) 2027년까지 1조엔을 투자, 일본 전국 모든 역사에 PSD 설치 예정
홍콩	YES	1998년부터 PSD 도입, 지하역사에는 밀폐형, 지상역사에는 난간형 설치 현재 1개 노선(동철선)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에 PSD 설치
싱가포르	YES	1987년 세계 최초로 유리문 형태 스크린도어 설치, 30년 이상 PSD 운영 1980년대 설치된 PSD가 노후화되면서 신규 PSD 설치 검토 중
대만	YES	2018년부터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PSD 완비
영국	NO	런던지하철, 글래스고 등에 2025년까지 PSD 100% 설치 예정 세계 최초 도시철도인 런던지하철은 19세기에 건립, 노후화되어 PSD 도입 과 지하철 전면 리모델링 사업 동시 진행 중
프랑스	NO	파리지하철에 PSD 추가 계획은 있지만 지연 중이며, 파리 지하철 14호선은 100% PSD가 완비되었으나, 대다수는 미설치 2024년 파리올림픽 대비 지하철 전역에 설치 계획 중이나, 예산부족으로 지연
러시아	NO	구 소련에서 세계 최초 PSD를 만들었지만 일부 역에만 PSD 설치 2020년까지 푸틴대통령의 지시로 완비 예정이었으나 진행되지 않음
호주	YES	Sydney Metro, 2030년까지 4개노선 전체에 PSD 100% 설치 계획, 2019년 개통한 Northwest 노선(13개역)에 PSD 완비 2014년 가동 예정인 Sydney Metro Southwest 노선 11개역에 PSD 입찰 진행 중, 동사(현대무비스) 포함 3개사가 최종 Shortlist에 선정, 연말까지 결과 발표 예상

자료: 언론취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2022년 4월 LG화학 2차전지 양극재공장 수주로 2차전지시장 진출, 상반기 중 2차전지 전담 신사업팀 설립, 2차전지 전후공정 자동화 및 장비까지 턴키로 공급 계획

1) 신규사업으로 2차전지 물류 솔루션시장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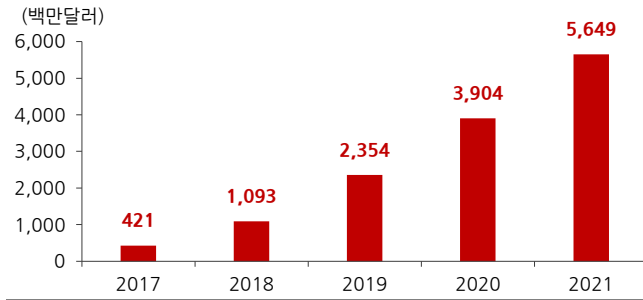
동사는 22년 4월 LG화학 구미 2차전지 양극재 공장 자동창고 공사를 수주(129억원)하며 2차전지 부문에도 진출하였다. 이에 동사는 2차전지시장 수주 확대를 목표로 상반기에 2차전지 전담 신사업팀을 설립하였으며, 2차전지 전공정 및 후공정의 물류자동화 건설팅 유경험자 위주 인력확충으로 시장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사는 2차전지업체의 생산환경과 제품사양에 맞춰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공정 자동화에 필요한 장비까지 시스템화해 턴키(Turn-key)방식 공급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 국내 전기차 수출액은 2017년 4.2억달러에서 2021년 56.5억달러로 연평균성장률(CAGR) 91.4%를 기록하였다. 동기간 전체 승용차 수출액은 2017년 388.3억달러에서 2021년 443.2억달러로 CAGR 3.4%에 그친 점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로 매년 거의 2배씩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8월 누계 전기차 수출액은 48.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3.7% 증가하였다.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2차전지 공장의 물류 솔루션시장도 본격적인 성장세가 주목된다. 2차전지 생산공장에 필요한 물류 솔루션 시장 규모는 아직 구체적인 시장 통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과 맞물려 자동화 설비 수요도 빠른 속도로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사는 유통과 택배, 석유화학, 타이어/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2차전지 시장에서도 시장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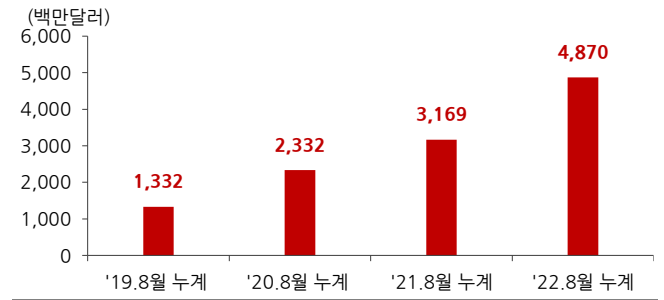
현재 국내외 물류 자동화업체 중에서 2차전지에 특화된 업체는 코스닥 상장사인 코윈테크이다. 코윈테크는 2차전지 前공정과 後공정에 필요한 물류 자동화 설비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업체로 국내업체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해외업체들도 코윈테크 자동화 시스템을 채택,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0% 내외로 추정된다. 코윈테크의 매출액을 보면 2017년 401억원에서 2차전지 수요 증가 영향으로 2021년 1,063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성장률 27.6%로 동종업체 중 가장 높은 외형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코윈테크의 2022년 상반기 매출액은 1,06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8% 성장해 동기간 동사의 물류자동화 부문 매출 성장률 8.6%를 크게 상회하였다. 2차전지 산업의 수요성장률이 물류 자동화 전방산업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윈테크는 2012년 2차전지 後공정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며 2차전지시장에 진출했으며, 2017년 2차전지 前공정까지 확대하여 세계 최초로 2차전지 전체공정에 대한 Full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다.

국내 전기차 수출액



자료: 무역협회(HS Code: 870380),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2년 8월 누계 전기차 수출액 비교



자료: 무역협회(HS Code: 870380),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Sydney Metro, PSD 공급업체 발표 임박, 수주 성공 시 해외 진출 본격화

Sydney Metro, PSD 공급업체 결과 발표 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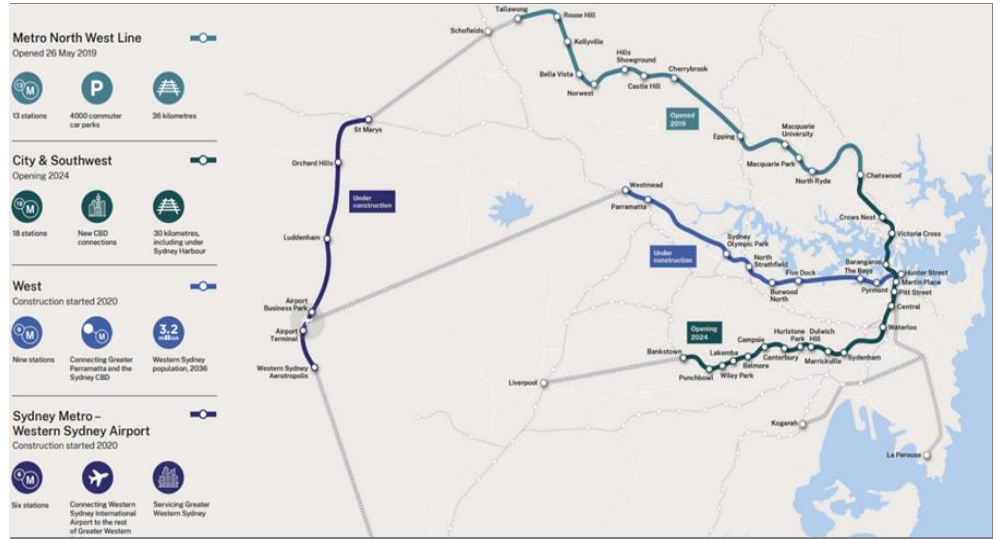
동사는 2020년 1월 호주 NWS주정부의 'Sydney Metro Project'에 PSD 공급 입찰에 참여해 일본 Kyosan Electric과 스위스 Gilgen Door System과 함께 최종 Shortlist 3社에 선정되었다. Sydney Metro는 이르면 연내 최종 업체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동사가 선정된다면 그동안 PSD 내수판매가 포화 된 상황에서 최초로 해외 진출 물꼬를 트는 사례로 동사의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 받게 될과 동시에 해외 다른 국가로도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Sydney Metro 프로젝트는 높은 출산율 및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시드니 광역도시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호주 최대 도시철도 건설사업이다. 그동안 시드니지역에는 노면전차 및 시티레일은 있었으나, 도시철도(지하철)는 없었다. Sydney Metro 프로젝트는 총 4개 노선으로 첫 노선인 Sydney North West Line은 2012년 건설에 착수해 2019년 5월 개통되었으며, 2030년까지 총 46개역, 총연장 113km에 추가 3개 노선(City & Southwest, West, Western Sydney Airport Line)이 건설될 계획이다. 2024년 두번째로 개통되는 노선은 City & Southwest Line이다.

2019년 개통한 첫 노선인 North West Line에 PSD를 공급한 업체는 프랑스의 Faiveley Transport社로 13개역에 PSD를 제작 설치하는데 총 3,500만유로(490억원)에 수주하였다. 역당 PSD 수주액을 계산해보면 공급단가는 269만유로(38억원)로 통상 국내에서 PSD 설치금액인 15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수주액이다.

동사가 입찰에 참여한 Sydney Metro 노선은 총 4개노선 중 City & Southwest Line으로 기존 T3라인 Sydenham역과 Bankstown역 사이의 11개역을 업그레이드하는 신규 노선이다. 해당 노선은 2017년 건설에 착수하여, 2024년 신규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동사는 2020년 PSD 입찰에 최종 Shortlist 3社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면서 수주결과 발표도 늦어졌다. 해당 노선의 개통이 2024년으로 임박한데다 코로나19 봉쇄 완화로 국가간 이동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Sydney Metro의 최종 결과가 이르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PSD 수주예상액은 Sydney Metro 첫번째 노선인 North West Line의 3,500만유로(13개역)를 감안할 때 원화기준 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드니 메트로 건설 개요



자료: Sydney Metro,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사 포함 최종 3사가 PDS공급
업체 최종 후보에 포함,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경험,
가격경쟁력 감안 시
수주 가능성 충분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는 일본의 Kyosan Electric과 스위스의 Gilgen Door System으로 동사에 비해 업력이 오래된 글로벌 기업들이나, 동사의 수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동사는 도시철도 선진국인 한국에서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1위업체로 시공경험이 풍부한데다, 유럽 및 일본 경쟁업체와 비교할 가격경쟁력도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철도 업력이 50년이 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지난 2020년 11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Sydney Metro의 서부선(West Line)과, 공항라인(West Airport Line) 건설업체로 선정(3년간 70억원 규모 계약 수주)되었고, 현대로템은 2016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시드니 광역철도에 2층 전동차 554량(9,720억원 규모) 수주에 성공하는 등 호주 시드니지역에서 국내업체들의 도시철도 기술력이 다방면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PSD 부문에서도 국내 1위 업체인 동사의 수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Sydney Metro Project Summary 中 PSD 공급업체 관련

(i) Platform Screen Doors and Mechanical Gap Fillers

Sydney Metro will procure the platform screen doors (PSDs) and mechanical gap fillers (MGFs) for the Sydney Metro Southwest under a separate contract.

Sydney Metro has entered into the contract titled "Sydney Metro City & Southwest, Southwest Metro, Mechanical Gap Fillers (MGF) and Platform Screen Doors (PSD) Product Proving Deed" with (i) Kyosan Electric manufacturing Co., Ltd; (ii) Hyundai Movex Co., Ltd and (iii) Gilgen Door Systems AG, each dated 20 January 2020 for the development of the PSDs and MGFs (each a PSD/MGF Product Proving Deed).

Following this, Sydney Metro intends to enter into a contract for the procurement of the PSDs and MGFs with one contr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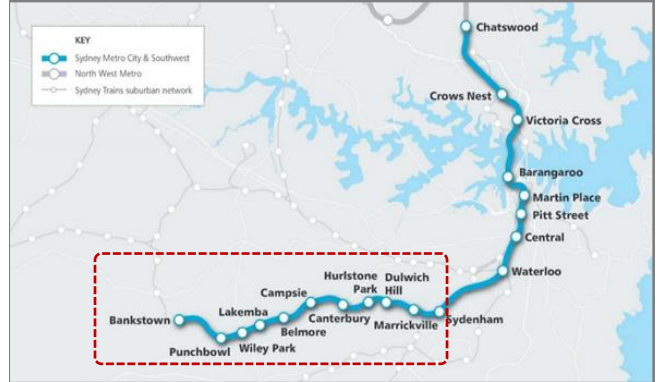
자료: Sydney Metro,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Sydney Metro PSD 조감도



자료: Sydney Metro,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Sydney Metro City & Southwest Route



자료: Sydney Metro,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2년 상반기 실적 분석

**2022년 상반기 매출액
974억원으로 YoY 2.4% 감소,
영업이익은 34억원으로
82.9% 증가,
상반기 OPM 3.5% 기록**

2022년 상반기 매출액은 97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4억원으로 82.9% 증가하였다. 영업이익률은 3.5%로 전년동기대비 1.6%p 상승하였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주력 사업부인 물류자동화 매출액은 6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반면, PSD(승강기안전문) 매출액은 105억원으로 35.8% 감소하고, IT서비스 부문 매출액도 225억원으로 6.8% 감소하였다.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면 1분기에는 연초 매출 감소와 자재 수급문제, 철강원가 상승, 영업 및 R&D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매출원가율이 2021년 4분기 77.9%에서 86.4%로 8.5%p 급등해 14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2분기에는 외형이 증가하고 자재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영업이익은 48억원 흑자로 전환하였다. 영업이익률은 1분기 -4.1%에서 2분기에는 7.8%로 턴어라운드 성공하며 과거 평균치를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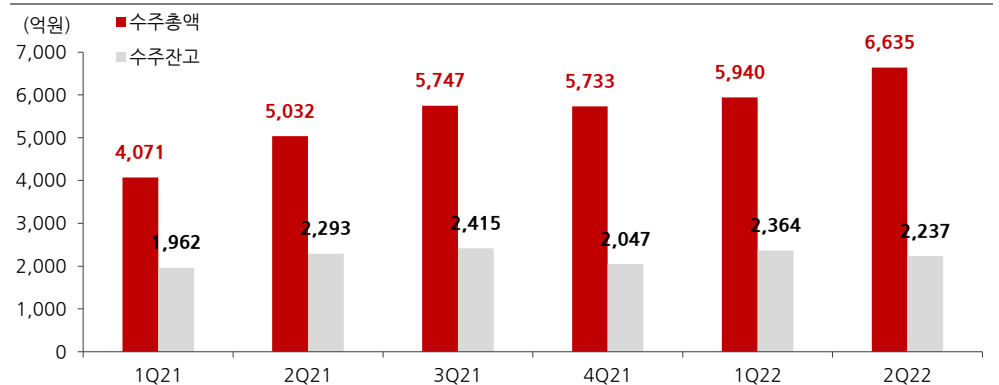
동사의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면 수요업체들의 연초 사업계획 확정으로 1분기를 최저점으로 연말로 갈수록 매분기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고, 4분기에는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매출이 집중되면서 영업이익 비중이 전체의 70% 전후를 차지한다. 통상 1~2월은 비수기이며, 하반기에 따른 건설 비수기 영향으로 공사일수가 줄어들고,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4분기에는 매출이 집중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상반기말 누적 수주총액은
6,635억원으로 최대치 기록,
물류 자동화 부문에서
수주증가분의 89% 차지**

상반기 누적 수주총액은 6,635억원으로 2021년말대비 15.7%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물류자동화 부문 수주총액이 5,152억원으로 2021년말대비 18.4% 증가해 전체 수주총액 증가분의 89%를 차지하였고, PSD와 IT서비스 수주총액은 694억원과 789억원으로 각각 8.3%와 6.5%씩 증가하였다. 2분기말 수주잔고는 2,237억원으로 2021년말대비 9.3% 증가하였다. 사업부문별 수주잔고는 물류자동화 부문 1,633억원, PSD 267억원, IT서비스 부문 337억원 등이다.

2021년부터 수주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1년 이후 공급계약을 보면 동사가 업계 최우수 역량을 보이고 있는 타이어 부문에서 수주실적이 돋보인다. 동사는 2021년 4월 중국 영롱타이어의 유럽 세르비아공장에 280억 원 규모의 타이어 공정자동화 계약을 수주한데 이어 중국 영롱타이어 장춘 공장 자동화 계약을 36억원에 체결하였으며, 캄보디아 CART타이어社와도 92억 원 규모의 자동화 계약을 수주하였다. 2021년 7월에는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쿠팡으로부터 243억 원 규모의 용인물류센터 자동화설비를 수주하였다. 2022년 4월에는 LG 화학 구미 양극재공장 자동화창고 공사를 129억원에 수주하며 2차전지 시장에도 진출하였다.

수주총액 및 수주잔고



자료: 현대무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최근 4개년 수주 리스트

수주시기	발주업체	수주 내용	수주액(억원)
2019	현대케미칼	대산공장 자동화 창고 수주	702
2019	SPC 삼립	시화 물류센터 자동화 수주	127
2019	방글라데시 다카공항	카고시스템 수주	460
2019	SI 토탈	베트남/하노이 냉동창고 자동화 수주	168
2020	서해선, 동해남부선	PSD(승강안전전문) 수주	200
2020	네이버	세계 최초 로봇용 엘리베이터	39
2021	중국 영롱타이어	유럽 세르비아공장 자동화	280
2021	중국 영롱타이어	중국 장춘공장 자동화	36
2021	캄보디아 CART 타이어	타이어 공장 자동화	92
2021	쿠팡	용인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270
2021	동원로엑스	웅동 냉동창고 수주	191
2022	LG 화학	구미 양극재공장 자동화 창고	129
2022	Sydney Metro	시드니 메트로 PSD 구축 수주 진행 중	N/A

자료: 현대무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향후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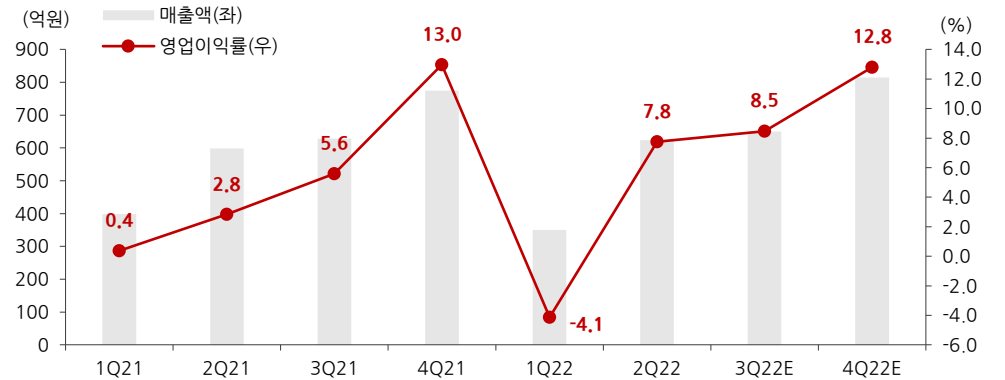
2022년 매출액 2,439억원,
영업이익 193억원 전망,
上低下高로 하반기 실적 개선

2022년 연간 실적은 1분기 매출 부진 영향으로 인해 매출액은 2,439억원으로 1.6% 증가에 그치나, 영업이익은 193억원으로 25.4% 증가할 전망이다. 2분기 들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7.8%로 상승한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규모가 커지고 이익률도 상승할 전망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55억원으로 OPM 8.5%, 4분기 영업이익은 104억원으로 OPM 12.8%로 4분기 이익기여비중이 54%를 차지할 전망이다.

2023년 외형 +15.0%,
영업이익 +21.1% 증가 예상,
물류자동화 부문 성장세 지속,
PSD 부문 시드니 메트로 수주 및
2차전지 부문 추가 수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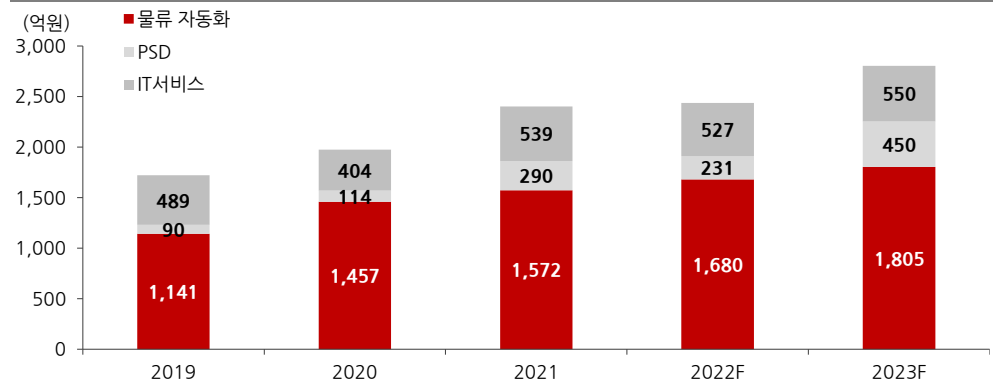
2023년 매출액은 2,805억원으로 15.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1.1% 증가할 전망이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8.3%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할 전망이다. 물류자동화 부문 매출액은 1,805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면서 전체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PSD와 IT서비스 매출액은 450억원과 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8% 및 4.4% 증가할 전망이다. PSD 부문에서는 호주 Sydney Metro 수주 가능성을 감안하여 매출에 일부 반영하였다. 연간 매출비중은 물류자동화 부문이 64.4%, IT서비스 19.6%, PSD 16.0%로 전망된다. 기대되는 부문은 동사가 LG화학의 2차전지 양극재공장 자동화설비 수주에 이어 2차전지 전담 신사업팀을 설립한 이후 인력충원으로 2차전지 물류 자동화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만큼 2023년에는 양극재 공장 이후 2차전지 양산공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현대무비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현대무비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전망

(단위: 억원, %)

	2019	2020	2021	2022E	2023E
매출액	1,720	1,975	2,401	2,439	2,805
물류자동차	1,141	1,457	1,572	1,680	1,805
PSD	90	114	290	231	450
IT 서비스	489	404	539	527	550
매출비중					
물류자동차	66.3	73.8	65.5	68.9	64.3
PSD	5.2	5.8	12.1	9.5	16.0
IT 서비스	28.4	20.4	22.5	21.6	19.6
내수판매	1,539	1,569	1,970	2,068	2,195
내수비중	89.4	79.4	82.1	84.8	78.3
수출판매	182	406	431	370	610
수출비중	10.6	20.6	17.9	15.2	21.7
영업이익	102	166	154	193	234
영업이익률	6.0	8.4	6.4	7.9	8.3
매출증가율	-2.5	14.8	21.6	1.6	15.0
영업이익증가율	-6.4	61.5	-7.0	25.5	21.1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現주가는 2022년 추정실적 대비 PER 23.1배, PBR 2.3배로 과거 평균대비 25~30% 저평가, 4개년 최저 수준에 주가 근접

동사의 現주가는 2022년 실적대비 PER 23.1배, PBR 2.3배로 과거 4개년 평균 PER 33.4배 및 PBR 2.9배 대비 25~30% 저평가 국면이다. 現주가는 2018년 현대유엔아이(IT서비스 前身)와 현대무백스(물류자동화 & PSD 부문) 합병 이후 현재와 같은 3개 사업구조를 갖춘 2019년 이후 4개년 최저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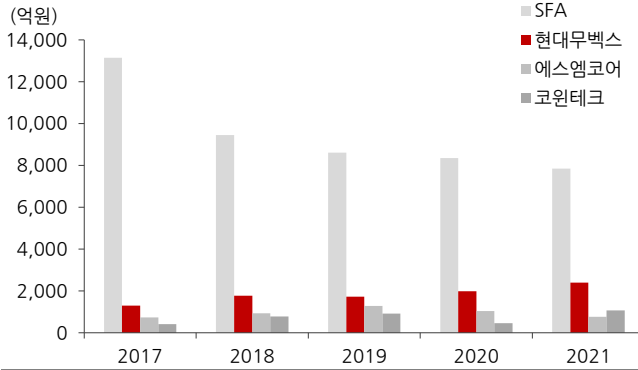
물류자동화 부문 동종사로는 ㈜에스에프에이, 코윈테크, 에스엠코어가 있다. 최대업체는 ㈜에스에프에이로 2021년 연결 매출액 1.56조원, 별도 7,838억원을 기록했다. 에스에프에이는 삼성항공의 자동화사업부가 1998년 분사해 설립된 회사로 주력은 디스플레이였으나, 최근 2차전지와 유통으로 비중이 확대되면서 비 디스플레이 비중이 높아졌다. 에스에프에이의 디스플레이 매출비중은 2017년 86%에서, 2021년 44%로 줄었으며, 2022년 상반기 35%까지 축소되었다. 반면 고성장세인 2차전지로 매출을 확대해 2차전지 비중은 2017년 8%에서 2021년 22%, 2022년 상반기 35%로 기존 주력이었던 디스플레이 부문과 매출비중이 같아졌다.

에스에프에이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2022년 실적 컨센서스 기준 PER 11.6배, PBR 1.1배로 동사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 되어있다. 추정컨데 에스에프에이는 기존 사업에서 디스플레이가 절대적이었고, SFA반도체도 종속기업으로 보유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의 주가 약세 영향에 동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코윈테크는 1998년 설립된 2차전지공장 자동화 공정에 특화된 업체이다. 2022년 상반기 매출액은 2차전지 부문 매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1,061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04.8% 급증하며 동종업계 최대 매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코윈테크는 ㈜에스에프에이, 동사(현대무백스)에 이어 매출액 기준 업계 3위였으나, 2022년 상반기 2차전지 부문 매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동사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부상하였다. 코윈테크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면 2022년 추정실적대비 PER 22.3배, PBR 2.1배로 동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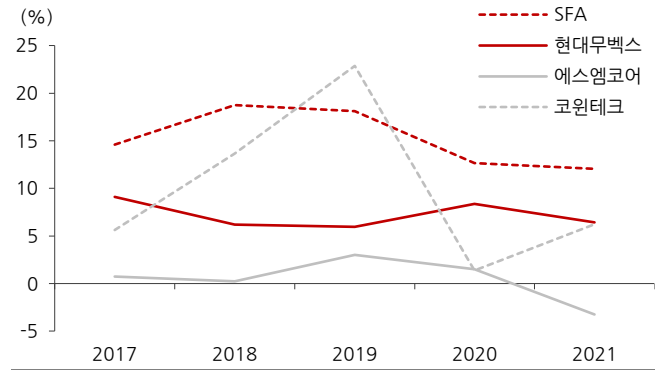
에스엠코어는 SK자회사(SK주식회사 지분 26.6%)로 옛 신흥기계에서 2016년 사명을 변경한 업체이다. 인도 타이어공장,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매출 인식으로 2022년 상반기 매출액 4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0% 증가했으며, 상반기말 수주잔고는 1,647억원(국내 950억원, 해외 696억원), 수주잔고는 1,261억원(국내 755, 해외 506)으로 ㈜에스에프에이, 코윈테크, 동사에 이어 업계 4위권이다. 동사에 대해서는 증권사 실적 전망치가 不在하다. 2021년 실적기준 PBR은 2.1배, 2022년 2분기 기준 1.5배 수준으로 동사에 비해서는 20% 정도 주가가 저평가 수준이다. 다만 실적을 보면 에스엠코어는 영업적자가 지속되다, 2022년 상반기 턴어라운드 성공했으나, 영업이익률이 2022년 1분기 0.5%, 2분기 3.3%로 비교대상 동종 4개사 중 가장 수익성이 낮다.

물류자동화 부문 동종업체 매출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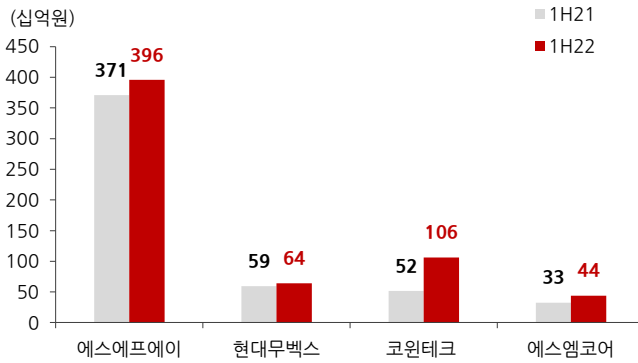
자료: 각사 사업보고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SFA는 별도 기준 매출액 적용

물류자동화 부문 동종업체 영업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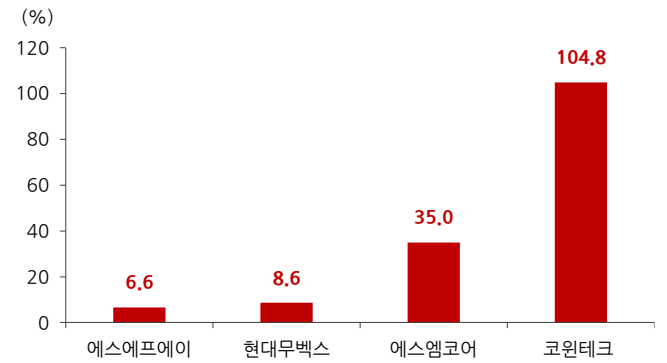
자료: 각사 사업보고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물류자동화 부문 동종업체 1H22 매출액 비교



자료: 각사 사업보고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SFA는 별도 기준 매출액 적용

물류자동화 부문 동종업체 1H22 매출증가율 비교



자료: 각사 사업보고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과거 4개년 밸류에이션 요약

(단위: 배)

	2019	2020	2021	2022	평균
PER (End)	27.5	51.2	39.7	23.5	
PER (High)	30.7	56.0	89.7	39.5	
PER (Low)	27.3	17.2	32.4	22.0	
PER (Avg)	28.3	18.9	57.5	29.0	33.4
PBR (End)	2.7	6.3	2.6	2.3	
PBR (High)	3.0	6.9	5.9	3.9	
PBR (Low)	2.7	2.1	2.1	2.2	
PBR (Avg)	2.8	2.3	3.8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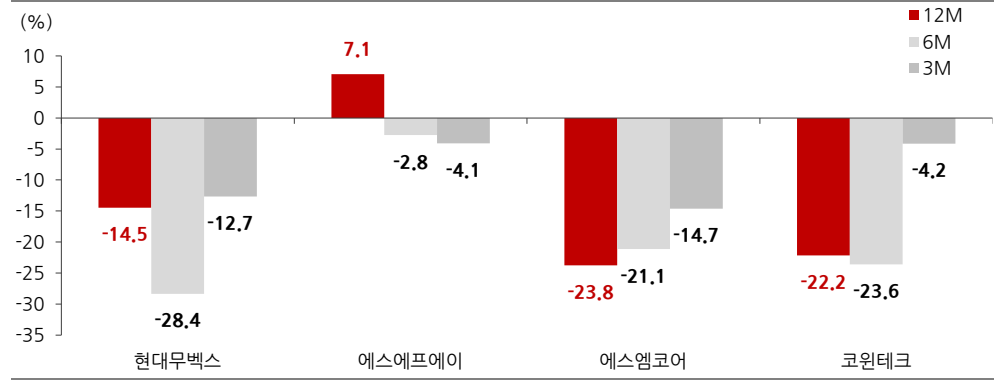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eer Valuation

기업명	시총(억 원)	매출액(억 원)		영업이익(억 원)		P/E(배)		P/B(배)		ROE(%)	
		21	22F	21	22F	21	22F	21	22F	21	22F
에스엠코어	1,068	764	N/A	-25	N/A	N/A	N/A	2.1	N/A	-0.8	N/A
코원테크	2,467	1,064	2,239	66	196	54.4	22.8	2.8	2.2	6.8	14.9
현대무비스	3,093	2,401	2,439	154	193	39.7	23.1	2.6	2.3	7.3	9.9
에스에프에이	13,915	15,649	17,459	1,889	2,057	11.1	12.0	1.2	1.1	11.1	9.8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종사 주가 수익률 비교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상반기 CB 전환(780만주)으로
오버행 이슈는 대부분 해소,
주식유동성 부족은 리스크요인**

2022년 상반기말 동사의 발행주식수는 112.9백만주로 전년말대비 780만주(+7.4%)가 증가하였다. 이는 2/28일 CB의 전환권 행사로 195만주가 증가한데다, 4/5일 추가로 CB 585만주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발행주식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2020년 6월 CB 발행(200억원) 이후 80%가 이미 전환되어 상반기말 잔여 CB는 40억원으로 주가의 오버행 이슈는 대폭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7/29일 동사의 공시내용을 보면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이 185.7만주 행사되었다. 동사가 지난 2020년 7월 부여한 총 372.3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 중에 절반이 행사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잔여주식수는 125만주로 줄었고, 전체 발행주식수의 1.1% 수준으로 미미한데다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보유기간과 보유 목적이 달라 오버행 이슈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이 61.0%로 높은데다, 과거 현대해상이었던 HMM이 지분 12.8% 보유하고 있어 주식유동성이 떨어지는 점은 리스크요인이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에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